통일을 위한 조건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1 년간 우리 국민 모두는 그 어떤 때보다 희망적인 남북 관계를 경험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남북한의 견해 차이가 부각되고 일부 정치 · 경제 일정들이 수 차례 지연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로 빠지는 듯한 감도 없지 않다.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50년의 분단으로 왜곡된 역사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1년만에 바로 잡힐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남북 관계의 진전은 우리의 바램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통일의 ‘ 필수 조건 ’이라면, 국내외적인 정세는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 충분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확인된 한민족의 통일 염원을 내부적으로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우리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을 다시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의 「포커스」를 통해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대북 정책의 3重苦 ’라는 제목 하에 살펴보았다. 본 호의 말미에 있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한 여론 조사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현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집」을 통해서는 남북 양국이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협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례와 더불어 되새겨보았다. 특히, 여러 가지 문화적 · 역사적 · 국제 정세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서독 통일 과정에 나타난 舊서독 정부의 경협 활성화 지원 정책은 향후의 국내 경협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논단」의 첫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경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주제에서는 금년초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 제창과 중국 방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개혁 · 개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은 정치 · 경제뿐 아니라 사회 · 문화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북한 트렌드」에서는 북한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특징을 소개했다. 또한 「독자 기고」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기념보고회 사례를 통해 이 보고회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어떤 특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현재 다소 소강 상태로 느껴지는 것은, 6.15 정상회담 이후의 급속한 논의 진전과 기대감의 확대가 속도 조절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체감도의 변화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여전히 한민족 최대의 화두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이 더욱 현실적인 남북 관계의 전개 방향을 모색하고 민족의 염원을 이루는 데에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2001년 7월
편집자